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1월 28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28.(금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1. 27.(목)	담당부서	미주통상과 통상법무기획과
담당과장	박성준 과장(044-203-5650) 전동욱 과장(044-203-4870)	담 당 자	윤경민 사무관(044-203-5652) 장영빈 사무관(044-203-4871)

한미 통상장관 회담 개최

- 철강 232조 조치, 美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, 한미 FTA 10주년을 계기로 실장급 신통상 협의채널 가동 등 논의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** 1.27(목) 오전 10시(미국 동부 시간 기준, 한국시간 1.28(금) 0시)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함

□ 양국 통상장관은 ①철강 232조 조치, ②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, ③한미FTA 10주년을 기념한 양국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, 공급망 회복력 강화, WTO 개혁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도 공유함

❶ 여 본부장은 미국의 철강 232조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그간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**진전이 더딤**에 대해 **국내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함**

- **한국 철강업계도 현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**하여 **금번에 현지에서 미 의회, 경제단체,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**하여 철강 232 조치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함

❷ 미국은 최근 인태지역 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**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**를 구상하고 있음

- 양측은 세계경제의 핵심축인 인태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, 경제성장의 화두로 부상한 **디지털, 그린 경제 전환과 공급망 회복**을 위한 **역내 협력이 필수적**이라는데 공감함

- 특히 한국은 **신남방정책**을 통해 **아태지역**에서의 **협력 강화**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함

- **여 본부장**은 향후 미측이 프레임워크를 구체화나가는 과정에서 지속 협의해나가자면서 **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개방성, 투명성, 포용성에 입각**하여 **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가능한 기준과 협력**을 **포괄**하는 것이 **중요**하다고 전함

- 이에 **미측**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역내 국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가져오는 **미래지향적이고, 지속가능한 구상**이라는 점을 강조함

❸ 한미 FTA 발효('12.3.15) 이후 **한미 양국간 교역규모*는 약 66% 증가**하는 성과를 기록하고, 한미FTA를 기반으로 양국간 조화로운 제도운영을 조율해왔음

* (교역규모, 억불) ('12) 1,012 → ('21) 1,691 (65.9%↑)

- 한미FTA는 자동차, 철강, 노동,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통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한 소통채널로 역할해왔음

- 나아가, 지난 11월에 개최된 한미FTA공동위에서 합의한 **실장급 신통상 협의채널 구축**을 통해 **공급망, 기후변화, 디지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플랫폼**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함

□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금번 회담을 통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고, 무엇보다도 **한미 간 협력이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**이라 공감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윤경민 사무관(☎ 044-203-5652), 통상법무기획과 장영빈 사무관(☎ 044-203-48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